

간호사, 신종 코로나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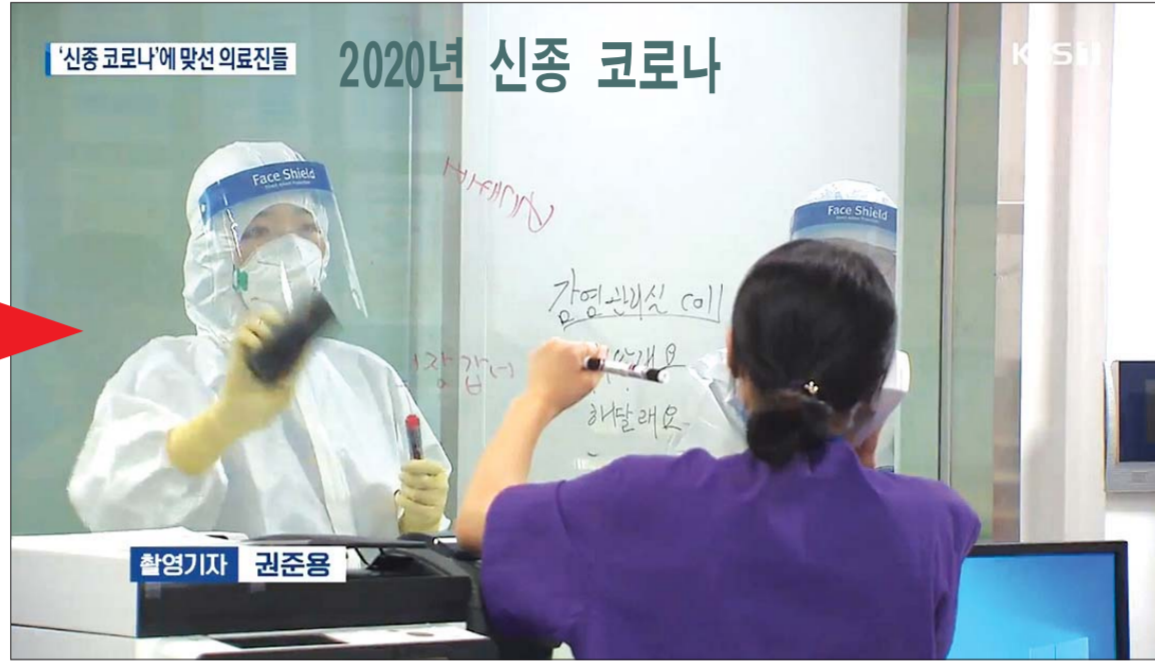
2015년 메르스

2015년 5월 20일, 한국에서 '메르스'와의 전쟁이 선포됐다.

간호사들은 극한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했다.

“최선을 다해 메르스가 내 환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맨머리를 들이밀고 싸웠습니다.”

간호사들은 감염의 위험과 죽음의 공포에 맞서 메르스와 싸웠고 마침내 이긴 소리 없는 영웅들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의료원 음압병동 모습.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간호사실 유리창에 글씨를 적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사진 = KBS 뉴스 9 캡처)

대한간호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병원의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또한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1마스크 캠페인을 벌이며 감염증 전파 방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간협, 확진자 치료병원 간호사들 격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서울의료원 간호부(간호부장 황선숙)를 2월 7일 방문해 격려했다. 현재 서울의료원 감염환자 전문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7명은 모두 자원해서 투입됐다.

신경림 회장은 “피하고 싶은 힘든 길에 스스로 나선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병동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와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간호사회(회장 박인숙)에서도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이들 병원에 ‘환마음으로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과일 및 건강음료를 2월 7일 보냈다.

이에 앞서 신경림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명지병원을 1월 30일 방문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인천시간호사회(회장 장성숙)는 인천의료원을 1월 30일 찾아가 간호사들을 격려했고, 과일을 전달했다.

KBS 뉴스 9, 서울의료원 음압병동 간호사 2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의료원 음압병동의 간호사 24시가 2월 6일 'KBS 뉴스 9'를 통해 보도됐다.

뉴스는 근무조가 바뀌는 인제시간,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를 전달받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했다. 간호사는 CCTV로 병실을 살피고, 인터폰으로 환자와 의사소통한다. 환자들 식사는 음압병실과 연결된 '패스 박스'에 넣은 뒤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간낸다.

마스크에 모자, 장갑은 두 겹이 기본이다. 보통 1시간 동안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하는데, 병실을 나오면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마련이다.

정혜진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고 벗는 데 평균 10분, 15분 정도 걸리고, 엄청 덥다”면서 “음압병동에서 일하는 걸 다들 걱정해서 시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서연 간호사는 “환자 본인들이 제일 힘들실 텐데도 간호사들 보고 ‘덥지 않나’ ‘힘들지 않나’ 걱정해주신다”면서 “위험한 걸 생각하고 자원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좀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남희은 간호사는 “환자들이 건강하게 퇴원하시도록 의료진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번 확진자 퇴원 ... 인천의료원 의료진에 감사편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고 인천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은 중국 국적의 여성 A(35세)씨가 2월 6일 퇴원했다. A씨는 퇴원 전날 인천의료원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문 편지를 전달했다.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서 “재앙 속에서 고통 받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생명을 구해주고 고맙다”면서 “중국에서는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어진 마음이 있다는 뜻의 ‘의자인심(醫者仁心)’이라



서울의료원 음압병동 간호사실. (사진=KBS 뉴스 9 캡처)



대한간호협회는 노숙인 시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후원하고, 시설 종사자를 위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는 말이 있는데, 나에게 당신들은 그 이상이였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모두는 나에게 영웅이고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간협 등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대응상황과 의약계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세균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애쓰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협조 덕분에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계 종사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방역에 참여하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간협, 노숙인 시설에 감염예방 물품 후원

대한간호협회는 노숙인 시설인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감염예방 물품을 후원하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2월 11일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감염예방을 위한 지원과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마스크 1000개와 손세정제 30개 등을 후원했다. 이어 센터 직원을 비롯한 특화자활사업 참여자 30여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물품 후원 및 교육은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노숙인들을 위해 활동하시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허용구 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대한간호협회도 노숙인들의 건강관리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허용구(안드레 신부)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숙인들을 보살피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며 “이 같은 시기에 대한간호협회가 감염예방 물품을 후원해주고 교육까지 진행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발생 현황

2월 11일 16시 기준 국내 확진 환자는 28명이다. 이 중 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발열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이 최종 결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했다.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료 변경했다.

또한 검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2월 7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정규숙·이진숙·최유주 기자

대한간호협회, 중국간협에 위로 서한 보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중국간호협회(회장 우 신주안, Wu Xinjuan)에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 싸우고 있는 중국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서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국의 간호사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간호사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중국 대륙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한국의 간호사들도 한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한대학 인민병원의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벗을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발물 했다는 소식이 한국 간호사는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간호사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어떤 위험적인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워왔다”면서 “지구촌 간호사는 한가족이며,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동료”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중국이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힘을 내길 응원하면서, 간호사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서울시간호사회 영등포역 캠페인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역 캠페인



대전시간호사회 대전역 캠페인



경남간호사회 창원중앙역 캠페인



경기도간호사회 수원역 캠페인



대구시간호사회 및 경북간호사회 동대구역 캠페인

시도간호사회 '1인 1마스크' 캠페인

대한간호협회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시도간호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가 2월 3일 영등포역에서,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지원)가 2월 4일 부산역에서, 대전시간호사회(회장 송용숙)가 2월 7일 대전역에서, 경남간호사회(회장 박형숙)가 2월 7일 창원중앙역에서,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가 2월 10일 수원역에서, 대구시간호사회(회장 최석진)와 경북간호사회(회장 신용분)가 2월 10일 동대구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간협 중앙회가 1월 30일 서울역 및 1월 3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시도간호사회에서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